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161>

JCCT 2018-11-19

素筌 孫在馨의 생애와 한글 書體美 분석

Sojeon, Son Jaehyung's life and An Analysis of Hangeul Handwriting beauty

김도영*

Kim Doyoung*

요약 素筌 孫在馨(1903~1981)은 한글 古體의 조형성과 필획의 장점에 주목하여 천재적·현대적 조형감과 기발한 착상으로 篆隸書에 접목하였다. 그리하여 天真爛漫하고 諧謔적인 독특한 서체로 승화시켜 동국진체를 계승·발전시켰다. 素筌 한글체는 점·획의 방향 전환, 획의 굵기와 길이 변화에 유의하여 각 점·획을 과장하여 표현하였지만, 장법과 구성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조화와 변화를 성취한 大巧美를 발현하였다. 素筌의 공로는 한글서에 발전과 기틀의 典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서예에 새로운 공간 영역을 창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심대하다.

주요어 : 소전 손재형, 소전체, 한글 고체, 동국진체, 대교미

Abstract Sojeon, Son Jaehyung(1903~1981) was interested in the composition of the classical writing style of Han-gul and its merits in the operation of the brush. And a genius, modern sense of sculpture and ingenious ideas applied to the calligraphy. Thus, he succeeded Tonggukjinche by sublimating it into a unique Handwriting pure and humorous. Sojeon Hangeul Calligraphy is exagg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 of direction, thickness and length of the stroke. There is nothing strange about law and organization and express the great beauty of the great art of harmony and change. Sojeon's contribu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not only become a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Han-gul calligraphy, but also created a new area of space in modern calligraphy.

Key words : Sojeon, Son Jaehyung, Sojeon Calligraphy, the classical writing style of Han-gul, Tonggukjinche, the great beauty

1. 서론

옛부터 南道는 문화예술이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이며, 특히 수많은 명필가가 독창적 서예세계를 발현하는 등 우리 고유의 서체풍인 東國眞體를 화려하게 꽃피운 藝鄉, 그 자체이다. 東國眞體는 조선 후기에 연미하고 진부한 趙孟頫(1254~1322)의 松雪體에서 탈피하고 서예

근본인 王羲之體로 다시 복고하자는 18세기 우리 고유의 法古의·主體的·自覺的 書風이다. 그 중에서도 珍島는 小痴 許鍊(1807~1892)과 素筌 孫在馨(1903~1981)이라는 걸출한 서예대가가 탄생한 藝島이다. 珍島에 유달리 서화예술이 발달한 데는 고려시대부터 流配地였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당시의 귀양객들은 詩·書·畫로 실의의 시절을 달랬고 서당을 열거나 개인

*정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문화재학박사)
접수일: 2018년 8월 22일, 수정완료일: 2018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8일

Received: August 22, 2018 / Revised: September 26, 2018
Accepted: October 8, 2018

*Corresponding Author: kdy3019@naver.com
Dept. of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 Korea

적 교분을 통해 珍島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소양을 전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藝鄉과 신명의 터전 위에 태어난 素筌 孫在馨은 秋史 金正喜(1786~1856)의 뒤를 잇는 20세기 한국 서예의 거장이자 큰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조선 말기에 태어나 역사적 격동기에 애국애족적 충절의식과 中和의·風流의 정취로 작품에 몰입하였다. 그리하여 篆·隸書와 한글 古體를 바탕으로 한 素筌體라 불리는 독특한 한글서체를 개발하였고, 해방 후 '書藝'라는 용어를 창안하여 공식적인 명칭이 되게 하는 등 한국서단 발전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공로와 명성에 비해 아직 그의 서예술 전반에 걸친 분석과 宣揚 사업은 미진하다. 현재 素筌에 대한 주요 저술과 도록 그리고 논문을 살펴보면, 김진배, 『素筌 孫在馨 書畫集』, 동아일보사, 1977. ; 진도균, 『素筌 孫在馨』, 소전미술관, 2004. ; 서귀포시, 『素筌 孫在馨 : 산을 보고, 물소리를 듣다.』, 2016. ; 孫炳哲, 「秋史 以後의 一人者-孫在馨의 書藝術世界」, 『木浦文化』 제143호, 목포문화원, 2014. ; 金源翊, 『素筌 孫在馨 研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金成煥, 『素筌 孫在馨 研究: 한글 書體와 篆·隸書를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등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崇古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주체적인 예술세계를 펼친 素筌 孫在馨의 독특한 한글 서체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가 추구했던 서예미학의 지향성과 가치를 고찰코자 한다.

II. 素筌 孫在馨의 생애

素筌은 1903년 4월 28일(음) 全南 珍島郡 珍島邑 校洞里에서 寧煥의 遺腹子로 출생하였다. 비록 유복자로 태어났으나 그의 집안은 3천석을 자랑하던 부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兒名은 判玆, 字는 明甫, 號는 초기에 小田으로 쓰다가,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주로 素筌을 썼으며, 堂號는 蓬萊第一仙館·尊秋史室 등이다. 5살 때부터 조부 玉田 孫秉翼으로부터 한학과 서법의 기본을 익혀 기본기를 다졌다. 특히 그의 유년기에는 珍島로 귀양 온 茂亭 鄭萬朝(1858~1935)가 그의 집 사랑채 뒤에 방을 얻어 사당을 꾸렸기에 그에게 학습과

교학의 영향을 받았다. 玉田은 총명했던 손자에 대한 기대가 커서 서울 효자동에 커다란 저택을 지어 유학을 보냈다. 1920년 양정의숙(양정고등학교 전신)에 진학한 후, 惺堂 金敦熙(1872~1936)의 尙書會에 입문한다. 1924년에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약칭 '鮮展')에 隸書로 쓴 「羅氏家訓」이 첫 입선한 이후 8회까지 5년 연속 입선하였고, 제9회와 제10회에는 특선을 하는 등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930년 제10회 조선서화협회 전에서는 수석상을 수상하였으며, 1934년에는 이른 나이에 조선서화협회 이사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1938년에는 북경으로 건너가 金石學·考證學의 대가인 羅振玉(1866~1940)을 찾아 師事하고, 당대 최고의 서화가들과도 교류하며 새로운 문물과 서화예술 전반에 관한 근본을 탐구하였다.

素筌은 五體에 두루 능숙하였는데, 篆隸는 甲骨文과 金石文, 古隸 등을 열심히 숙련하였다. 특히 私淑한 秋史의 書體에서 많은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楷書는 顏眞卿, 柳公權, 歐陽詢 등을 두루 익혔으며, 行草는 黃山谷體를 주로 썼으며 기교가 넘치고 초탈하면서도 호방하게 썼는데, 차츰 篆隸의 필법을 접목하여 自家風의 行草를 이루었다. 동국진체에 서예의 연원을 둔 素筌 서예는 필흥을 느끼게 하는 자유로운 리듬감과 생동감이 돋보이는 新동국진체를 이루었다. 특히 篆書에 독특한 필력을 보였으며 이를 더욱 연마하여 篆隸書와 한글 古體를 융합하여 한 특유의 율동감이 느껴지는 독특적 예술경지를 이루며 1930년대에 자신의 서체인 한글 素筌體를 완성하였다.

서예평론가 孫炳哲은, “근현대 한국서예사에서 한 획을 그은 素筌은 ‘秋史以後 第一人者’ 소리를 들을 만큼 사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19세기 천재 예술가 중 위대한 서예가가 秋史 金正喜라면,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 서예가는 당연 素筌 孫在馨이다. 그는 일찍이 각 서체를 두루 자가의 서풍으로 성취시켰으며, 특히 한글서예에 있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본인이다. 篆隸風의 素筌體의 특징은 국한문을 막론하고 하나의 法에서 나와 千變萬化의 창신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데 있다.” 고 극찬하였다.(珍島郡, 『素筌 孫在馨』, 진도향토문화회관, 2004. p. 119.)

1945년 8월, 뜻있는 서예인들에 의해 朝鮮書畫同研會가 조직되었는데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해방 이

후 素筌은 중국의 ‘書法’, 일본의 ‘書道’와는 다른 ‘書藝’라는 말을 직접 창안하여 이를 대중에게 친숙한 ‘한글서예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47년에는 낙후된 고향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 진도중학교(현, 진도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47년~1949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강사를 지내면서 최초로 대학에서 서예과목을 신설, 강의하였다. 해방 이후인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國展’)부터 제9회(1960)까지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1964, 제13회)을 역임하며 國展을 통해서 현대서예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1954년과 1960년 각각 초대 및 제2대 예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1958년(56세)에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예술정신의 부흥을 도모코자 정계에 투신하여 제4대 민의회(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진도군) 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5.16이 발생하여 짧은 의원 생활을 마감하였다. 1961년 篆書 「八馬遺風」으로 대한민국예술원장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藝總’) 창립에 앞장서 1965년(63세) 제4대 藝總 회장에 취임한 후 5대까지 연임하였다. 1966년에 藝術院 부회장에 피선되었으며,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1968년 국민훈장 모란장에 이어 1970년에는 최고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敍勳하였다. 1971년(69세)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진도군)되었고, 1979년에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7년여 투병 중, 1981년 6월 15일 서울시 홍지동 자택에서 향년 79세로 타계하였다.

한편, 근현대 시기의 고서화 수장가로서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남다른 안목을 지녔던 素筌과 秋史 작품인 국보 제180호인 「歲寒圖」와의 일화는 유명하다. 찬란한 문화유산인 「세한도」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경매에 나왔는데 경성제대 교수로서 고증학과 금석학의 대가이자, 秋史 연구자인 후지즈카·지카시(藤塚隣·1879~1948) 교수에게 낙찰되어 1944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평생 秋史를 마음의 스승으로 여겼던 素筌은 이 소식을 듣고 “내 작품들은 다 버려도 「세한도」만은 버릴 수 없다.”며 거금을 준비해 현해탄을 건넜다. 그러나 후지즈카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만다. 하지만 素筌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매일 찾아가 진정성을 보임

으로써 그의 열정에 감동한 후지즈카에게서 「세한도」를 양도받아 귀국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후지즈카의 연구실이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소장품의 상당수가 소실되고 말았다고 하니, 素筌의 노력 덕에 「세한도」는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素筌은 그리도 어렵게 입수한 「세한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정계에 진출하면서 선거비용으로 「세한도」를 포함해 秋史의 또 다른 걸작인 「不作蘭」과 張承業의 인물화 등 3점을 당시 돈 3,000만원(현재 가치로는 약 30억원 정도로 추산)에 개성 출신의 수장가 손세기에게 매도하는데, 그렇게 넘겨진 「세한도」는 그의 아들 손창근이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보관하게 됨으로써 대중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素筌은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북경행을 통해 예술심미적 안목을 넓힌 그는 葦滄 吳世昌(1864~1953) 이후 근현대에 제일가는 古書畫 收藏家이자 鑑識家로 손꼽혔으며, 해운회사와 목포극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이력은 그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열정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가늠케 한다.

III. 素筌의 한글 書體美 분석

역사적 격동기에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무상한 인간 근본의식의 추구나 삶의 재확인 그리고 새로운 시대와 통치에 합일치 못하는 신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의식 혹은 반대로 이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 등이 표출된다. 일제치하 우리민족은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현실생활과 직결된 순 한글과 국한문 혼용의 표기가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말과 글을 본격적으로 표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확한 표준어나 맞춤표기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글을 ‘언문’으로 비하하며 하찮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때, 해방 1세대 서예가들에 의해 새로운 기운의 자각과 시도가 시작되었고, 素筌은 한글서예운동과 활용에 적극 앞장서게 된다.

素筌은 우리의 민족정서와 심미특질을 근간으로 한 한글 古體의 조형성과 필획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한글을 서예술영역의 장르로 끌어들이었다. 특히, 한글 판본체에 篆隸書의 필의와 현대적 감각, 그리고 기발한 착상을 접목시켜 독특한 한글 素筌體를 이루었다. 이는 국문서예의 개척이라는 획기적인 창조정신이자, 한글서예사에 기록될 큰 업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素筌體의 성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타고난 천재성과 實事求是 정신으로 금석학 및 각종 서체 등을 통해 서법의 원류를 끊임없이 궁구한 끝에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素筌體는 자신의 내면적 성정을 표현한 것이며, 각고의 연찬을 통해 熟後求生한 創新의 서체미를 전개시켰다. 다음은 素筌의 대표작 2점을 통해 완숙되어 새로운 경지를 이룬 한글 素筌體의 서체미를 분석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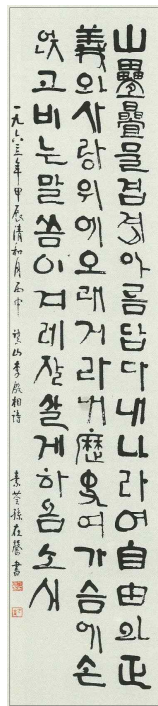


그림 1. 손재형, 「푸른민족」, 1964, 57×266cm, 소전 미술관

Figure 1. Son Jaehyung, 「Blue people」, 1964, 57×266cm, Sojeon Art museum.

[도 1]은 篆書 필법과 필세를 한글에 접목시킨 국한문 혼서체이다. 이 작품은 정자 서체를 벗어나 약간의 반흘림과 隸書體의 멋스러움이 융합되어 다소 과격

적이다. 素筌의 글씨는 기존의 틀로 보면 생경할 정도로 과격적이다. 그러나 놀라우리만큼 현대적이며 諧謔的이고, 여백의 공간 활용이 재치있다. 그리고 글자의 굵기 및 大小 대비와 方圓曲直의 妙가 뛰어나다.

이는 法古創新의 원칙에 따라 폭넓은 금석문과 오체를 두루 섭렵한 끝에 이루어진 超脫의 경지이다. 王羲之는 “한 자를 쓰더라도 여러 가지 서체가 모두 갖들인 것처럼 하고, 한 장의 글씨에서도 모름지기 글자마다 의미가 구별되어야 한다.”(王羲之, 『書論』, “爲一字, 數體俱入. 作一紙之書, 須字字意別.”)며 풍부한 변화와 정확한 운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 작품은 점획의 가감과 위치 이동, 운필의 遲速과 필획의 曲直, 먹의 飛白과 濃淡이 과격적이면서 글자마다 오체의 특징이 모두 녹아내린 운필 운용으로 심중의 흥취를 발현하였다. 중획은 간혹 三絶法을 섞어서 굵게 힘차게, 횡획은 물결치듯 유연하면서도 강한 필력이 솟아나듯 운필하였다. 복모음 ‘에’는 중간 부분을 속도감을 조절하여 머무르고 꺾는 변화를 주어 리드미컬한 율동감이 풍기도록 하였고, ‘이’ 4자는 각기 달리 운필하여 친진난만하고 즐박한 조형성을 드러내었다.

전반적으로 공간과 크기가 일정한 판본서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초·중·종성이 음운체계의 공간과 크기, 자획의 굵고 가늘, 붓의 속도와 획의 운용, 자간과 행간의 疏密 등에 있어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 장법과 포치를 운용하였다.

옛 것에 매달려 오로지 擬古에만 몰입하고, 古人을 그대로 답습·모방하면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터부시하고 도외시한다면 발전은 요원하다. 전북서예의 중흥조인 石亭 李定稷(1841~1910)은, “최고의 경지(太上)는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더욱 삼가는 것이다. 삼가면 생경한 것에 가깝다. 스스로 생경하여 다시 돌이켜 숙련이 되어야 진실로 숙련된 경지(眞熟)가 된다. 眞熟 이후에야 가히 변화(化)할 수 있다.”(李定稷, 『石亭李定稷遺藁』 II, 「書金石田屏」, “而太上愈熟而愈謹, 謹則近乎生. 自生而返乎熟而後, 乃爲眞熟, 眞熟而後可以化矣.”. 김재문화원, 2001, p. 556.)며 창신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를 강조하였다.(金道瑩, 「石亭 李定稷 書藝의 藝術論과 書體 분석」, 『東洋藝術』 第26號, 韓國東洋藝術學會, 2014. pp. 11~14 참조)

또한, 沈尹默은 『書法論叢』에서, “운필을 빠르게 할 때면 빠르기가 마치 번개와 같아 몇 글자가 함께 연

결하고, 운필을 느리게 할 때면 一派三絶이 있는 즉, 하나의 가로획과 세로획 사이에서도 스스로 머무르고 꺾음이 생겨난다.”(沈尹默, 『書法論叢·序』, “運筆快時則疾若閃電, 好幾個字連在一起, 而運筆慢時則一波三折, 卽在一橫一直之間也自生頓挫.”)고 하였는데, 素笏의 서예 심미 역시 철저한 법과 격식에 기초하여 성찰적 태도와 비판적·체계적 연마를 통해서 眞熟과 生硬의 大巧 경지를 지향하였다.

이 작품은 용필이 유려하고 다채로워 한없는 정기를 깊이 간직한 심미가 느껴지고, 힘찬 필세의 울동미와 생경미가 낙관적 해학미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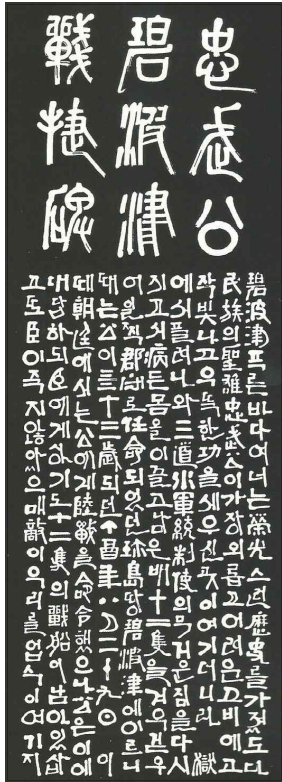


그림 1. 손재형, 「이충무공벽파진첩비문」, 1956, 소전미술관

Figure 1. Son Jaehyung, 「Lee Chungmugong Byukpajin win a victory epitaph」, 1956, Sojeon Art museum.

[도 2]는 1956년 진도군 고군면 벽파진에 세운 한국 최초의 국한문 혼용비인 <忠武公 碧波津 戰捷碑>이다.(길이 5.7m, 높이 1.2m, 폭 4.7m 규모의 거대한 거북좌 최대 碑石의 거대 비석이다.) 戰捷碑文은 4면, 본문 879자와 표비 대문자 9자를 포함 총 888자로 구성되었

고, 그 중 한자는 272자이고 한글은 616자이다.

碧波津은 忠武公이 명량해전 직전 16일간 머물렀던 곳이고, 1984년 진도대교가 놓이기 전까지는 진도 사람들이 육지를 왕래하던 나루터였다. 鷲山 李殷相(1903~1982)의 글을 素笏이 썼는데, 생시에 素笏 스스로도 이 비문에 대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나, 훈민정음의 변화와 정음예술의 기원은 이 素笏 예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역사는 말할 것이다.”고 자부할 만큼 이 작품을 최고의 得意作이자 필생의 대표작으로 생각하였다.

碑文에 쓰인 888자는 모두 같은 형태가 없다. 36번이나 쓴 ‘이’자도 모두 다르고, 간단한 열 십자(十)도 각기 다른 모양이다. 상단부분 篆書의 합체자의 결구는 변과 방이 서로 돌아보듯 호응을 이루어 편안함 느낌을 주고 있다. ‘月’과 ‘日’은 초기 상형문자를 보듯 그림에 가까워 書畫同源의 극치를 이룬다.

이 작품의 국한문 혼서체는 甲骨文과 篆隸風을 관본체에 담아 天真拙樸하고 諧謔的인 素笏만의 서체로 승화시켰다. 각각의 글자가 길고 짧거나 또는 서로 가지런하지 못하여 들쭉날쭉한 參差丕齊한 장법을 보이고 있다.

素笏은 한글의 특징과 아름다운 조형성을 바탕으로 둥글며 중후한 필세가 느껴지는 篆書 圓筆의 운용과 자유자재한 장법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子音의 모양 변화, 획의 위치와 굵기 및 길이와 접필, 받침의 각도 조절과 배분을 통해 글씨의 輕重을 조절하였다. 또한, 母音의 방향과 간격, 위치와 길이 등에서 울동적인 리듬감과 독창적 형세미를 이루었으며, 비슷한 획이 반복될 때 크기나 모양이 다양한 屈伸의 변화로써 오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다양한 한글 고체를 자기화한 새로운 서체를 구현하여 大巧若拙의 최고 경지를 발현한 素笏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고에서 살펴 본 素笏 孫在鑿은 아쉽게도 제대로 된 문집이나 시집 등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사상이나 예술론을 고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현재 전해오는 유작과 그와 관련된 후대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짐필하다보니 素笏 서예술 전반에 대해 조망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素筌은 秋史 金正喜 이후 한국 서예계의 최대거목으로 일컬어진다. 어려서부터 유가적 가풍 아래 축적된 書卷氣와 尙古정신이 작품 안에 녹아내려 晉體와 六朝體, 그리고 한글 고체를 바탕으로 한 특유의 한글 素筌體를 이루었다.

素筌 서체의 근원은 珍島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한 圓嶠 李匡師의 법고적·주체적·자각적 서풍인 東國眞體에 그 뿌리를 둔다. 素筌은 한글을 서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국한문 혼서체 및 순한글체를 篆隸體에 접목·시도하였다. 이러한 素筌體의 성립은 타고난 천재성과 實事求是 정신으로 금석학 및 각종 서체 등을 통해 서법의 원류를 끊임없이 궁구한 끝에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여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한글 고체의 조형성과 필획의 장점에 주목하여 천재적·현대적 조형감과 기발한 착상으로 접목하여 天真爛漫하고 諧謔的인 素筌만의 독특한 서체로 승화시켜 동국진체를 溫故知新的 발상으로 계승·발전시켰다. 素筌 한글체는 점·획의 방향 전환이나 접필 정도, 획의 굵기와 길이 변화에 유의하여 각 점·획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는데, 자획과 구성에서 무리가 없고 書卷氣와 文字香이 넘친다. 또한, 행필에 있어서 작품내용과 필의와 필맥이 상통한다. 그리하여 용필·결구·장법에 있어서 상이한 조형요소들은 상극적이 아니라 상보적으로 자신 또한 상대방의 존재 기반이 되어 조화와 변화를 성취한 神韻의 大巧 경지를 이루었다.

이러한 한글 素筌體는 전반적으로 參差不齊한 장법을 보이고 있으나, 필세와 포치는 “違而不犯, 和而不同”을 이루면서 陰陽對待의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素筌이 개척한 한글의 篆隸體化는 한글서에 발전과 기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서예에 새로운 공간 영역을 창출하였다는데 그 의미와 공로는 심대하다.

* 이 논문은 필자의 2018년 진도학회 추계절례회 학술대회(2018. 10. 24.)에서 발표한 「素筌 孫在馨 書藝의 美學的 예술경지」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References

[1] Jindo-gun(2004), 『Sojeon, Son Jaehyung』, Jindo Hyangto Cultural Center.
 [2] Do young Kim(2014), “Theory of art and analysis of handwriting in the calligraphy of Seokjeong Lee, Jeongzic”, 『THE EASTERN ART』 Vol. 26, The Korean society of Eastern Art studies.